

‘틱톡 범죄 놀이’에 美 현대·기아 차량 절도 확산

경찰, 피해경보 발령...한달 보름 만에 642대 도난당한 곳도 피해 차주들, 집단소송 제기...현대·기아 “보안 키트 제공”

최근 미국에서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승용차를 훔치는 범죄 놀이가 유행하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차량을 노린 절도 사건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경찰에 따르면 일리노이, 위스콘신, 오리건, 코네티컷, 미시간, 위스콘신, 루이지애나, 텍사스, 플

로리다 등 거의 전 지역에서 현대와 기아 승용차의 도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를 관할하는 쿡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보름여 만에 642건의 현대, 기아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도난 신고(74건)와 비교하면 9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토머스 닥트 보안관은 성명을 내고 “극도로 우려스러운 절도 트렌드”라고 경고했다.

일리노이주 파크 포리스트 경찰은 2011-2021년형 기아차와 2015-2021년형 현대차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으며 차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애틀 경찰은 지난달 2014-2021년형 기아 차량 36대가 도난당했다며 이번 사건은 틱톡 범죄 놀이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도 올해 들어 절도범들이 현대차 268대, 기아

차 432대를 훔쳤으며 틱톡 놀이 때문에 현대·기아가 도요타, 혼다, 포드 등을 제치고 절도 대상 1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네티컷주 셸턴 경찰은 지난 13일 이후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 6대 모두 현대와 기아 차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셸턴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인 이스트 윈저 경찰은 SNS를 통해 현대·기아차 도난 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기아 보이즈’라는 해시태그 아래 절도 방법을 알려주며 범죄를 부추기고, 실제 훔친 차량을 자랑하는 ‘틱톡 쉘

린지’가 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범죄 놀이는 현대·기아차 가운데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을 노린다.

엔진 이모빌라이저는 자동차 키 손잡이 등에 특수암호가 내장된 칩을 넣은 것으로, 암호와 동일한 코드를 가진 신호가 잡히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경찰은 절도범들이 이모빌라이저 기능이 없는 2021년 11월 이전 현대·기아 차량만을 골라 훔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동차 키홀 주변의 플라스틱 커버를 뜯어낸 뒤 충전용 USB와 드라이

버를 사용해 시동을 걸고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사고가 이어지자 현대·기아 차주들의 집단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차주들은 현대·기아의 설계 결함으로 차량이 도난당했다며 위스콘신, 오하이오, 미주리, 캔자스 법원 등에 잇따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기아 미국판매법인은 당국과 협력해 차주들에게 핸들 잠금장치를 지원하고, 도난을 방지하는 보안 키트를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머스크, 뜬금없이 “팬유 사겠다” 외신 “실제 추진인지 확실치 않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16일(현지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를 사들이겠다는 트윗을 앞뒤 맥락없이 올렸다.

머스크는 이날 오후 트위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사들인다”며 “유어웰컴(ur welcome-천만에요)”이라고 썼다.

이 트윗은 수만 건 리트윗되며 전 세계 네티즌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머스크는 뜬금없이 보이는 트윗을 종종 올린 바 있고, 이번에도 실제로 그가 맨유 인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머스크는 해당 트윗에 연결된 직전 글에서는 “나는 공화당의 왼쪽(좌파) 절반과 민주당의 오른쪽(우파) 절반을 지지한다”고 쓰기도 했다.

/연합뉴스



떼지어 출항하는 중국 어선들 중국 남부 광둥성 양저에서 조업기간 첫날인 지난 16일 만선의 꿈을 안고 어선들이 일제히 바다로 출항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대만 국민 78.3% “中 군사훈련 두려워 하지 않아” 여론조사...52.9% “펠로시 의장 방문 지지”

대만 국민의 대다수는 난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데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만의 영자지 타이완뉴스는 17일 대만어문재단(TPOF)의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만 국민의 78.3%가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TPOF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8월 2-3일)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규모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자의 78.3%는 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반면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한 두려움을 표기한 응답자는 17.2%에 그쳤다.

아울러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할 상황을 고려할 때 펠

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52.9%가 ‘방문을 추진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33.6%는 ‘방문을 취소했어야 했다’고 응답했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39%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53%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거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조사 대상자의 44.1%는 미국이 개입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47.5%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TPOF의 여론조사는 지난 8-9일 대만의 성인 남녀 1천35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3.05%포인트다.

/연합뉴스

브라질 대선 레이스 본격 개막... ‘룰라 vs 보우소나루’

10월2일 대선 투표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돌입

남미 브라질의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16일(현지시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 오는 10월 2일 투표가 실시되는 이번 대선엔 총 1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그러나 사실상 선거 대결구도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67)과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디시우바(76) 전 대통령의 2파전으로 일찌감치 굳어졌다.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극우 성향 현직 대통령과 브라질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전직 대통령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최근 치러진 브라질 대선 중 가장 양극화한 대선으로 평가된다.

극과 극 대결인 데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은 선거이기도 하다.

2003-2010년 집권한 룰라 전 대통령은 극적인 재기를 노린다.

빈곤 속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룰라 전 대통령은 일찍부터 구두닦이, 노점상 등 여러 일을 전전하다 금속 공장에 취직했다.

이후 노동 운동에 뛰어들었고, 금속노동 조합 위원장으로 대규모 파업 시위를 이끌며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

1980년 노동자당(PT) 창당을 주도하며

정치에도 입문해, 대선 도전 4번 만에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대통령까지 올랐다.

당시 좌파 물결이 거세던 중남미에서 대표적인 좌파의 아이콘이었다.

경제 성장 등에 성과를 내며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고, 연임 후 후계자인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도 기여했다.

이에 맞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군 장교 출신으로, 전역 후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거침없는 막말과 포퓰리스트 성향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과 비교되며 ‘브라질의 트럼프’ ‘열대의 트럼프’로 불렸다. 실제로 본인도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칭송했다.

2018년 대선에서 개신교 보수파 등의 지지 속에 노동자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고, 취임 후에도 선을 넘나드는 행보로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선 룰라 전 대통령이 줄곧 1위를 달리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앞섰다.

전날 발표된 조사기관 IPEC의 여론조사 결과에선 룰라가 44%, 보우소나루가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브라질 대선에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 대결을 펼치는데,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는 룰라가 51%, 보우소나루가 35%였다. 결선은 10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독일, 보스니아에 평화유지군 10년만 재파견

발칸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보스니아에서 최근 다시 갈등의 불씨가 일면서 독일이 10년 만에 평화유지군을 재파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은 보스니아에 이날부터 시작해 9월 중순까지 모두 30명 정도의 병력을 보낼 예정이다.

독일 평화유지군은 2012년 말 현지에서 철수한 이후 10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독일 병력은 유럽연합(EU) 평화유지군인 유럽통합군(EUFOR)과 함께 활동하게 된다.

보스니아는 보스니아계(이슬람교), 세르비아계(정교회), 크로아티아계(기독교)가 뒤엉킨 인종, 종교간 갈등으로 1992-1995년 10만명이 숨지는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었다.

이후 국제사회 중재로 평화유지군이 투입되고 ‘한지붕 세민족’ 체제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 세르비아계가 다시 분리독립 움직임에 시동을 걸려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스니아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깊어지면서 자칫 전쟁의 불뚱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는 곳이기도 하다.

/연합뉴스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팀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는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듈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 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미싱스페이스 | 자동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백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불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오열기능 | 슬라이딩받식 | 지퍼베้า시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